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4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 개최

고창군이 지난 24일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노형수 부군수와 부위원장 이문식 전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등 위원 6명이 참석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회의에선 내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또 기간 기부자 공모와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기금사업 중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빈대 확산 방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정읍시가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안전팀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1개반 3명이 참여해 지역 내 숙박업소 97개소와 목욕장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점검 사항으로는 ▲시설 내 빈대발생 여부 확인 ▲매트리스 틈새·창틀·커튼 등 장소별 빈대 유무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내년도 비 보급종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내년도 벼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 벼종자를 신청받는다. 이번 보급종 종자는 신동진, 참동진, 안평, 해당, 해풍, 동진할 등 6개 품종 180톤이다.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에 따라 농약 오염을 방지 차원에서 신청하는 모든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만 공급된다. 정부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격포~위도 항로 정상화

추가 취항 선박 (주)해진해운소속 '천시아일랜드 3호' 1일 생활권 보장·이용자 불편 해소·관광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29일부터 격포~위도 항로에 여객선이 추가 취항함으로써 그동안 불안정하던 항로 운영이 5개월만에 완전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취항한 선박은 (주)해

진해운(대표 이상우) 소속의 '천시아일랜드3호'로 지난 10월에 진수된 408톤 규모의 신조선으로 승객 210명과 중형차량 34대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도를 기항지로 하고



(주)해진해운 소속 '천시아일랜드3호' (사진=부안군청 제공)

있어 기존 낡고 작은 여객선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위도 주민들의 1일 생활권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격포~위도 항로는 2개 선사가 2척의 여객선으로 1일 6회 왕복 운항을 하였으나 지난 7월 1개 선사가 운영난 심화로 폐업함에 따라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되어 위도 주민들은 물론 위도를 방문하는 일반인과 관광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여객선 추가 취항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와 원활한 위도 방문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군은 이를 위해 해수부와 군산해수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이원택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기 격포~위도 항로 여객선 운항 정상화를 이끌어 내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위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위도를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18억400만원 도비 8억6800만원 확보

고창군이 내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8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선 8기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농

산물유통센터(APC)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과 소규모 상품화 시설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자운저장고 신축, 선운산농협 매향선별장 개보수 및 집하장 신축, 대성농협 팜프가공시설 보완 및 생산라인 설치, 해리농협 양파선별기 증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고

추, 매향, 팜프, 양파를 상품화하고 고품질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4개소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창군 농산물들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제값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루지 말고 지금 암검진 받으세요"

정읍시가 더 많은 시민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진 독려에 나섰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50세 이상은 매년 대장암 검진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은 위암·간암·폐암·자궁경부암·대장암·유방암 등 6개 암이며,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무료,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20~69세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 건수 6만 913건 중 2만 796건만 검진을 완료했다. 대상자는 전국 검진 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으며, 정읍에서는 지정된 15개의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시 보건소는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는 50세 이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체변통을 비치하고 있다.

2019~2023년까지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시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로 연락하면 대장암 검진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분인부담경감대상자)이 암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 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높은 확률로 완치될 수 있어, 국가 암검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민예산 참여제 추진

2025년도 예산편성시 기획단계부터 반영... 투명성 신뢰성 확보

정읍시가 2025년도 예산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편성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획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규모는 지역회의의 발발사업 46억원(읍·면·동 당 2억원 이내), 시민 제안사업 공모 5억원으로 총 51억원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내년도 3월에 수립해 4~6월경 사업 접수를 받아 7~8월경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지난 9월 25일에서 9월 26일 이틀에 걸쳐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총 192개 사업(46억 4800만원)을 선정, 2024년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학수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9일 권익현 군수, 군의원,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온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부안군, '부안온가족센터' 개관... 종합서비스 제공

부안군은 29일 부안군수, 군의원,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온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원광백양어린이집 아이들과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영웅'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센터 건립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온가족센터는 지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76억을 투입해 2020년 1월 착공, 2023년 6월에 준공됐으며, 연면적 2,153㎡ 지상 4층 규모이다. 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놀이터,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보육실,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며, 3층에는 부안온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상담실, 4층에는 교육실, 체험실, 언어교실이 있는 생활SOC 복합시설이다. 부안온가족센터는 기존 다양한 가족

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온가족센터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보육실 등을 신규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육아,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온가족센터를 통해 모든 가족의 생활편의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로 자리매김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육아에 도움을 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